

첫 국무장관 블링컨·유엔 대사 그린필드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오늘 첫 내각 인선 발표
국가안보보좌관에 설리번
트럼프 불복 행보 상관없이 속도



트럼프의 여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티어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마친 뒤에 차를 타고 골프장을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백악관 참모진에 이어 내각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것인데 백인 남성 일색을 탈피해 '미국 같은' 행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프로그램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화요일(24일)에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9일 회견에서 민주당 내 진보도 중도도 수용할 만한 인사로 재무장관을 낙점했으며 26일인 추수감사절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발표 대상이) 어떤 부처인지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지를 알고 싶다면 당선인이 24일 직접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미 언론은 그러나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무장관과 UN 대사 등이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먼저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58)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시인 전이라도 차기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며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것을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도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블링컨 전 부장관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블링컨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경력을 쌓기 시작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인자인 부장관을 지냈

다.

UN 대사로는 흑인 여성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명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와 약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그린필드 전 차관보는 2013~2017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뒤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리지 그룹에서 선임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인 제이크 설리번(43)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1일 클레인 낙점에 이어 17일 마이크 도널런 선임고문 등 9명의 백악관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20일에도 영부인 정채극장에 말라 아디가를 지명하는 등 후속 인선을 이어왔다.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또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취임식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하던 취임식과 같은 종류는 아닐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축하)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좁먹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선 결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8> 쿠빌라이

쿠빌라이(1215-1294)는 몽고 제국의 제5대 황제로 징기스칸의 손자다. 남송을 멸망시키고 대원 제국을 세웠다. 고려를 복속시키고 베마, 일본 등을 침공했다.

1215년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남 몽케는 1251년 4대 황제에 취임했다. 쿠빌라이를 막남한지(莫南漢地) 대총독으로 임명했다. 쿠빌라이는 베이징에서 정복으로 250킬로 떨어진 다륜현의 금련현(金蓮川)을 본거지로 삼았다. 남송 정벌을 위해서 우선 운남(雲南)과 대리(大理)에 대한 원정에 나서 성공을 거두었다. 쿠빌라이의 신중한 행보에 화가난 몽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사천쪽으로 남했다. 무더운 날씨와

여사대를 설치했다. 민정·군사·감찰을 담당하는 세 기관을 황제에게 직속시킴으로써 전통적인 황제 통치 방식을 따랐다. 또한 하북 지방에서 세력을 행사하던 한인세후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군민경령제(軍民兼統制)를 철폐해 주군의 관직을 한인세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선법(銜選法)을 개정해 중서성 이부가 문관을 추밀원이 무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고려를 복속시킨 후 일본과 수교를 희망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1174년 1차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몽고·고려·한국으로 구성된 2만 6천명의 군대를 보냈으나 폭풍을 만나 자멸했다. 소위문명지역(文永之役)으로 불리는 사건이었다. 1281년 2차 일본 원정에 나섰다. 고려군 4만, 한군 10만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군은

대원 제국 세운 칭기스칸의 손자

역병에 시달린 끝에 1259년 사천 조어산에서 사망했다.

몽케의 급서로 차기 황제를 둘러싼 권력 싸움이 시작되었다. 수도 카라코룸에는 막내 동생 아리크 부케가 있었다. 쿠빌라이는 개령부로 돌아와 쿠빌타이를 열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1260년 연호를 중통(中統)으로 정하고 아리크 부케를 공격해 4년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군사력과 물자조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쿠빌라이의 승리였다. 도읍을 연경으로 옮겨 대도(大都)라 이름짓고 1271년에는 주역에 입각해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정했다.

쿠빌라이의 당면 과제는 남송의 정벌이었다. 1266년 남송의 이종이 재위 40년만에 사망했다. 이종의 조카인 조기가 재상 가사도의 지원으로 즉위하니 도중이다. 원나라 군대는 요충지 양양을 포위해 항복을 받아냈다. 수비군을 지원한 여문환의 거둔 지원 요청에 응한 황후는 목욕부담이었다. 결국 양양은 함락되고 3년 후 1279년 남송은 멸망했다. 1275년 남송이 무호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 왕조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원군을 이끈 바안은 남송의 공종 등 왕족을 붙잡고 대도로 개설했다.

대도 천도를 계기로 중앙 기구를 정비했다. 국정의 중심 기관인 중서성, 군정을 담당하는 추밀원, 감찰기관인

과관했지만 태풍으로 기타쿠슈바다에서 깨졌다. 역사에서는 이를 흉안지역(凶安之役)으로 부른다.

쿠빌라이 치세에 몽고 제국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몰락한 오고타이 가문의 카이두가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 오고타이의 5남 카시의 아들인 카이두는 아리크 부케의 계승을 선언하고 쿠빌라이에게 도전했다. 쿠빌라이는 1277년 장군 바안을 보내 카이두를 공격하였다. 카이두는 만주와 동몽고를 지배하는 일족들과 결탁해 여러 차례 쿠빌라이를 공격했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쿠빌라이의 중주권에 도전하는 싸움을 계속했다.

쿠빌라이 말년에는 3번에 걸친 베트남 원정에 나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계속된 몽고 일족과의 중주권 싸움과 해외 원정으로 국력이 소진되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인들의 교역을 장려했다. 색목인(色目人)이 관계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사망한 황후 차비가 1281년 죽고 1286년 황태자 친킴마저 죽자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후처와 두 딸에게 정치를 일임하였다. 1294년 2월 대도 황궁에서 79세로 병사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쿠빌라이는 포용의 정치를 추구했다. 불필요한 살상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몽고의 전통을 결코 잊지 않은 몽고인을 기리는 추밀원, 감찰기관인

日 검찰, 아베 '벚꽃 행사' 의혹 본격 수사

일본 검찰이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고발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때 아베 전 총리 등이 정치자금 규정보다 위반한 혐의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아베의 비서 등을 소환조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전야제 비용으로 호텔에 지급된 총액이 전야제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참가비 총액보다 많으며 그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루된 이들을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베의 비서 2명 외에 지역구 지지자 등 적어도 20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아베 전 총리 사무소의 금전 출

납장, 호텔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전야제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아마구치현 시모노키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으며 조사를 받은 비서 중 1명이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전야제는 일본 총리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벚꽃을 보며 환담을 하는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도코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야제가 열렸으며 작년에는 아베의 표발인 아마구치현 지지자 등 7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참가자들이 1인당 5000엔(약 5만 4000원)의 참가비를 냈고 이 돈으로 식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호텔 음식 가격이 비취보면 회비가 지나치게 저렴한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해 왔다. /연합뉴스

"유럽, 내년 코로나 3차파동 우려"

WHO 전망...독일, 봉쇄 연장 검토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전문가가 내년 초 유럽에서 코로나19 3차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나바로 WHO 코로나19 특사는 최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 3차 감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 지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봉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2일부터 이른바 '가벼운 봉쇄' 조치를 도입했지만, 감염자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25일 여러 지도자와 만나 추가 제한조치를 도입할지, 현행 제한조치를 연장할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